

中共의 文藝自由化思潮와 「傷痕文學」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文藝動向을 中心으로—

李 充 陽*

〈目 次〉

- | | |
|------------------------------|--------------------------------|
| I. 序 論 | (2) 「傷痕文學」의 代表的 作家와 그 作品 |
| II. 中共文學의 發展過程과 文藝 理論鬭爭 | IV. 中共黨의 「傷痕文學」에 對한 批判과 標準文藝作品 |
| (1) 中共文學의 時代區分 | (1) 「傷痕文學」의 追求傾向과 中共黨의 批判 |
| (2) 毛澤東의 文藝思想과 作家 들의 反撥 | (2) 中共黨의 新文藝政策과 標準文藝作品 |
| III. 文藝界의 自由化思潮와 「傷 痕文學」 | V. 結 語 |
| (1) 中共의 「思想解放」政策과 文藝界의 自由化思潮 | |

I. 序 論

지금 中共에서는 文藝批判을 통한 思想鬭爭은 한 고비를 넘기고, 또 다시 새로운 속청이 시작되리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中共의 文藝는, 政治의 지배하에서 思想鬭爭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中共文學을 政治를 배제하고 文藝自體의 藝術性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偏執함과 無

* 高대 文理大學 中文科 副教授

知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毛澤東이 죽고 「四人幫」이 축출된 후, 中共의 體制改革과 同時에 일기 시작한 文藝界의 自由化思潮속에서 나타난 新興文學이랄 수 있는 所謂 「傷痕文學」·「暴露文藝」·「新寫實主義文學」 등으로 불리우는 것들을 區別하지 않고 「傷痕文學」이라고 稱하고, 그 內容을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傷痕文學」은 1981년에 접어들면서 過去를 回顧·暴露하는 內容에서 變化하여 農村生活의 現況이나 「四個現代化」를 主題로 한 作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作品의 內容이 過去의 單一化되고 雷同化한 公式에서 벗어나 比較的 複雜하고 多樣하게 思想·情緒 등을 探索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傾向을 살펴보면서 作品의 追求傾向과 文藝理論·政治鬭爭등의 關係를 서로 연관지어 살펴보려 한다. 먼저 中共 「文藝政策」의 變化過程을 時代別로 區分하고, 中共文藝政策의 經典이랄 수 있는 「毛澤東文藝理論」과 作家들의 갈등·鬭爭을 살펴본 후, 現在의 「傷痕文學」의 代表的 作家와 그 作品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中共의 文藝思潮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Ⅱ. 中共文學의 發展過程과 文學理論鬭爭

(1) 中共文學의 時代區分

中共은 1921年 7月 1日 共產黨을 創立한 이래 60여년간, 그 文藝思想의 形成과 文藝政策은 一貫性을 유지하면서 관계적인 變化를 하여왔다. 특히 毛澤東의 「延安文藝講話」는 中共文藝政策을 系統化시킨 里程碑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을 分水嶺으로 하여 크게 두 時期로 나누어 보겠다.

第一時期：1919年 中共黨 創始人中的 一人인 陳獨秀가, 「五·四」新文學運動의 始作과 거의 同時에 「프로레타리아文學思想」을 알린 때부터, 毛澤東이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를 發表하기 前까지 20餘年間을 第一時期로 보고 그 단계적 演變·發展을 살펴보면 ;

① 1919년부터 1929년까지의 十年間, 中共은 文藝政策이나 文藝組織도 없었다. 단지 陳獨秀·李大釗·瞿秋白·惲代英·蔣光慈等 몇몇 사람들이 「新文學運動」이란 이름속에서, 「프로文學」理論을 大量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즉 「無產階級文學」觀念을 朝鮮에서 中國으로 移植하려 하였다. 이 時期는 中共文藝政策의 胎動時期이며, 「프로文學」의 播種時期라 하겠다.

② 1930년부터 1941년까지는 「左翼作家聯盟」의 活動과 「統一戰線政策」의 時期였다. 1930年 3月 2日 「左翼作家聯盟」으로 中共은 文藝組織을 갖추었고, 또 1934年 1月 毛澤東은 「文化教育總方針」을 提起함으로써 처음으로 文藝政策을 定하였다. 따라서 「左翼」作家들은 中共「文藝政策」의 影響과 領導下에 初步的인 「프로文學」創作活動을 하였다.

그러나 1936年, 中共은 「統戰政策」에 따라 「左聯」을 解散시켰다. 組織이 瓦解됨에 따라 中共文藝陣營은, 周揚의 「國防文學」과 魯迅의 「民族革命戰爭의 大衆文學」의 口號로 因해, 첫번째의 分裂이 시작되었다. 이 分爭은 1937年 7月 抗日戰爭의 爆發로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가 成立되어, 表面上 團結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第二時期：1942年 5月 毛澤東이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以下 「延安文藝講話」라 칭한다) 發表로 부터, 1976年 毛澤東의 죽음까지의 中共 「文藝政策」의 變化·發展過程을 말한다 ;

① 1942年 5月 毛澤東이 「延安文藝講話」를 發表하여, 中共文藝政策의 經典의 原則으로 삼았다. 이 時期는 中共이 大陸을 차지하기 前으로서, 「毛澤東文藝思想」으로 思想改造를 하기 위하여, 온갖 政治力量을 다 썼다. 따라서 反對者를 제거하기 위해 1942年 「延安文藝整風」으로 王實味

를 中心으로 한 作家들을 肅清하였고, 또 1948年 「東北文藝整風」으로 蕭軍을 代表로 한 作家들을 迫害·肅清한 事件이 發生하였다.

② 1950년부터 1964년까지는, 中共內外에서 毛澤東의 文藝思想을 反對하고 中共文藝政策에 反撥하는 激烈한 鬭爭의 段階였다. 이런 思想鬭爭은 四次에 걸친 「文藝整風」으로 具體化되어 나타났다. 即 1951年 孫瑜의 「武訓傳事件」; 1952年 俞平伯의 「紅樓夢研究事件」; 1955年 「胡風反革命集團事件」; 1957年 「丁玲·陳企霞反黨集團」事件이 그것이다.

③ 江青이 1964年 5月, 「京劇現代戲觀摩演出座談會講話」(以下 「京劇講話」라 칭한다)와 「文化大革命」期間(1966年 2月)의 「部隊文藝工作座談紀要」를 發表한이래 「四人幫」 축출까지의 期間에는, 江青을 中心으로 「毛澤東文藝思想」을 받들고, 思想的으로는 「三十年代文學」을 清算하고, 組織的으로서 「周揚集團」을 迫害하였다.

(2) 毛澤東의 文藝思想과 修正主義文藝理論

毛澤東 「文藝思想」이란, 學習과 實踐이란 方法으로 作家를 통제하고 思想·感情까지 改造하여, 이 개조된 정치관과 계급감정을 통해 대중의 사상·감정을 개조하여, 群衆路線 수행을 容易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이용해 中共黨은 작가 뿐 아니라 지식인 전체를 통제하고 대중을 革命투쟁에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同時에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특히 反對者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¹⁾

이러한 毛澤東 「文藝思想」의 範疇는, 毛澤東이 文藝에 대하여 한 講話·公文·개인편지 등을 총망라하여 稱하는 것인데²⁾, 그 중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가 가장 代表的인 것이다. 그 要點은 :

① 文藝는 政治에 從屬되는 것이다. 一切의 文藝는 一定한 계급에 屬해 있고, 一定한 政治路線에 屬해 있다.³⁾ ② 人性和 愛에 대하여; 具體的인 人性

1) 「中共黨의 文藝政策」(毛澤東文藝理論과 中共作家들의 갈등) 李充陽, 「中蘇研究」第6卷第一期, 1982年春, p.199.

2) 王學文, 「毛澤東文藝思想之剖析」, 「匪情月報」第25卷第2期, 臺北, 1982年 8月.

3)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p.22, p.4, 1953年, 人民出版社, 北京.

만 있고, 抽象的인 人性이란 없다. 階級社會에는 오로지 階級性의 人性만 있고 超階級의 人性은 없다.

文藝의 기본 출발점은 ‘愛’다. 이것은 人類愛를 말한다. 그러나 人類愛는 人類가 分化해서 階級이 생긴후론 없어졌고, 단지 觀念的으로만 존재한다.⁴⁾ 따라서 階級社會에서는 단지 階級的 愛만 있다.⁵⁾

③ 文藝界의 主要한 鬭爭方法은 文藝批評이다. 文藝批評은 政治標準을 우선하고, 藝術標準을 다음으로 한다.⁶⁾

④ 態度問題에 있어서는 ; 「敵」에 대해서는 暴露를, 「同盟者」에 대해서는 聯合과 批評을, 「自己」편에 대해서는 밝은 면만을 讚揚하고 노래해야 한다.⁷⁾

⑤ 文藝工作者는 自己의 立場과 靈魂을 改造하여, 無產階級과 人民大衆의 立場에 서서, 그들을 教育하고 改造하여야 한다.⁸⁾

이 「講話」는 1943年 11月 7日 中共中央宣傳部에서 中共文藝政策으로 規定하면서, “毛澤東 同志 「講話」의 모든 精神은 一切 文化部門에 適用되며, 또 黨의 一切 工作部門에 適用된다”고 發表하였다.⁹⁾ 이것은 現在까지 中共 「文藝政策」의 經典의 역할을 하였다.

文革 기간중에는 더욱 이것이 강조되었고 行政命令으로 文藝를 지휘하였다.

作家가 作品을 창작하는 데 소재, 양식, 완성시간 등이 規定되었고, 동시에 많은 禁列가 정해져 있었다. “영웅적인 인간은 결점과 동요가 있을 수 없다”, “보통인물은 쓸 수 없다”, “悲劇·풍자극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그 예에 든다. 이같은 문학은 상부의 뜻에 따른다고 해서 ‘遵命文學’이라고도 부르게 됐다.¹⁰⁾

毛澤東의 文藝理論은 정책상의 목표나 변화에 따라 변동되기도 했다. 정치정세가 中共 黨權派에 유리하게 되면, 문예정책은 통제성이 더욱 강

4) *Ibid.*, pp. 28~29.

5) *Ibid.*, p. 7.

6) *Ibid.*, pp. 26~27.

7) *Ibid.*, pp. 2~7.

8) *Ibid.*, pp. 2~7, “Sur la littérature et l'art, p. 129, 1961年 北京, 人民出版社.

9) 「整風文獻」(增訂本), 新華書店, 山東, 郭華論 「中共史論」第四冊, pp. 427~429, 國際關係研究所, 臺北, 1971年 6月.

10) 「文藝報」, (香港: 1979. 10. 1).

화되어 知識人 출신의 作家들에 대한 생활 改造, 낡은 사상의 清算 요구, 作品 비판이 빈번해졌다. 만일 整風이라도 있게 되면 작가들의 生活이나 思想등은 조금의 自由도 許容되지 않고 束縛됐다.

이와 같은 통제에 대한 中共 作家들의 갈등관계는 4人幫이 축출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표출되었다. 黨과 文藝界의 갈등관계는, 본질적으로 中共黨은 毛澤東文藝노선을 일관하려 하고, 문예계는 毛澤東 문예노선에 거부 의 태도를 보이려 했던 데서 나타난 것이다.

이 대립관계는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黨外部로 부더가 아닌 黨內部에서 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丁玲, 胡風, 馮雪峯, 陳企鵬 등이 모두 中共黨員이었거나 '同路人'이었는데도 黨外의 작가들에 앞서 불만을 표시했다. 두번째, 이 黨內作家들의 반발은 中共이 대륙을 차지하기 전에 발생한 점이다. 胡風의 文藝觀點은 일찌기 抗日戰時期에 이미 형성되었고, 丁玲등의 작품은 1954년 延安에서 발표되었다. 이것은 文藝界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思想分裂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思想分裂 현상은 현재도 中國文藝界에서 계속되고 있다.

中共黨內 作家들의 반발은 文藝理論속에 주로 毛澤東의 「文藝理論」을 수정 해석하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소위 修正主義이다.

中共은 이런 것을 지적하여 말하기를: 大陸文藝界에는 毛澤東思想과 대립하는 反社會主義의 黑線이 存在하고 있다. 이 黑線은 資產階級文藝思潮·現代修正主義文藝思想과 소위 三十年代 文藝의 結合으로 '나타난다. 「寫眞實論」·「現實主義廣闊的道路論」·「現實主義深化論」·「反題材決定論」·「中間人物論」·「反火藥味論」·「時代精神滙合論」 등은, 그들의 대표적인 文藝觀이다. 이러한 文藝觀들은 그 形成 및 提起한 시기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毛澤東文藝思想」에 대한 否定이나 거부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修正主義者, 혹은 反革命分子라는 批判을 받았는데, 그 代表的 인물로 胡風·周揚·林默涵·田漢·邵荃麟·夏衍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胡風은 1954年 7月 약 30萬字의 「몇가지 理論性問題의 說明資料」라는 「意見書」를 提起하여¹¹⁾, 中共文藝政策과 毛澤東文藝思想을 공격하였다. 특히 毛澤東 「講話」가 作家에게 요구한; 共產主義世界觀 · 工農兵生活 · 思想改造 · 民族形式政治 題材를, 作家 머리위의 「5개의 칼」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치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 事件은 1956年 「胡風反革命集團」의 清算이란 이름으로 일단락 지었다.

1956年—1957年の 鳴放期間에, 劉紹棠 · 秦兆陽 · 周勃등이 理論的으로 文藝의 特殊한 規律을 說明하면서, 文藝가 現實의 矛盾을 反映할 수 있도록 要求하였다. 그중 秦兆陽이 「何直」란 筆名으로 쓴 文章: 「現實主義—廣闊的道路」가 代表的인 것이다. 이 文章에서 秦兆陽은 「社會主義現實主義」의 既定定義에 대해 懷疑를 나타내면서, 「延安文藝講話」의 庸俗化된 理解와 解釋에 反對를 하였다. 이때에는 眞正으로 社會의 矛盾을 反映하며, 어두운 面을 다루고 生活에 간여하는, 中共社會에 衝擊을 준 作品들이 出現하였다. 그러나 곧 反「右派」運動으로, 이 理論과 作品들은 批判의 對象이 되었고, 그 主倡者들은 「右派」로 몰려 숙청되었다.

Ⅲ. 文藝界의 自由化思潮와 傷痕文學

(1) 中共의 「思想解放」政策과 文藝界의 自由化思潮.

「文革」前의 17년에 이어 10년에 걸친 「文革」의 大肅清, 그리고 毛澤東死亡과 「四人幫」失却에 이르는 30여년 동안은, 「毛澤東思想」을 더욱 공고히 지키려는 時期였다.

그러나 「四人幫」이 실각되고 華國鋒 · 鄧小平의 연합체제가 들어서면 서부터 正反對의 方向으로 돌아왔다. 즉 「四人幫」의 罪를 폭로하기 시

11) 胡風, 「對文藝問題的意見」, 「文藝報」부록, 香港, 1955年 2月 2日. 또 中共 「中國作家協會」에서 1955年 「胡風意見書」를 編印.

작하였고, 동시에 文化大革命에 대한 批判을 통해서, 毛澤東 시대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였다. 또 政治적으로 탄압받았던 事件들이 再審査를 거쳐 그 당사자들이 복권되었다. 이 審査의 時間的 上限線을 延安整風運動이 있었던 1942년까지라고, 中共黨은 발표하였다.¹²⁾ 이 조치는 이미 毛澤東路線에 대한 否定을 의미하고 있고, 同時에 「四人幫」을 비판하여 그 추종세력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文藝界도 文藝整風으로 제거됐던 作品이나 모든 文藝工作者들을 재심사하여 명예를 恢復시켰다. 또 ‘毒草’라고 지탄받던 作品들을 묶은 「重放的鮮花」란 제목의 책자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右派’ 혹은 ‘修正主義者’로 불리던 이들은, 新黨權派와 보조를 같이하여 毛澤東時代를 全面的으로 批判하기 시작하였다.

1976年 가을부터 1977년까지는, 小說·散文·戲曲·詩集등의 再版·新刊은 약 45種에 달하는데, 그 內容은 대개가 革命·戰爭·生産등을 고무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文藝論爭의 開放·文藝組織의 再整備등의 움직임이 始作되면서, 1977年 5月 20日 北京을 비롯하여 上海·河北廣東等地에서 연이은 「文藝創作座談會」가 열렸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文藝工作者」들이 新時期의 社會主義 번영을 위해서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 言及되면서 文藝는 活氣를 띠게 되었다.

또한 中共은 文藝界에 自由化思潮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中共歷史에 커다란 轉換點을 이루는 조치를 하였다. 即 鄧小平은 「百花齊放·百家爭鳴」方針을 執行하여 「思想解放」을 強調하였다.¹³⁾ 또 그는 「第四次全國文代會」의 祝辭에서: “藝術創作에 있어선 서로 다른 形式과 흐름이 自由롭게 發展하도록 하고 藝術理論에 있어선 서로 다른 觀點과 學派의 자유로운 討論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⁴⁾ 이것은 당시 이미

12) 陶君 “北京的風暴”, 「觀察家」, 第13期, 香港, 1978年 11月, p. 8.

13) 1978年 12月 中共十一屆三中全會(中國共產黨 第十一屆 中央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의 「決議」, 「人民日報」1983年 1月 4日.

14) *Ibid.*

出現하기 시작한 「傷痕文學」에 대한 支持를 暗示하고 있다.

이러한 「雙百」方針과 「思想解放」속에서, 傷痕文學은 지금까지의 作品과는 아주 다른 新內容·新技巧를 담고 自由化的 傾向을 띠면서 계속 출현하였다.

(2) 「傷痕文學」의 代表的 作家와 그 作品

이 傷痕文學의 첫 作品은 1977년에 출판된 劉心武의 短篇小說 「班主任」이다.¹⁵⁾ 內容은 3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을 등장시켜, 「四人幫」의 反 「師道尊嚴」운동이 끼친 해독과 青年問題를 고발하고 있다.¹⁶⁾ 이것은 概念化·公式化 등의 敎條文學의 속박을 벗어나 現實主義로 한걸음 나아간 作品이다.

두번째는 1978年 上海 復旦大學 학생 盧新華가 발표한 단편소설 「傷痕」이다.¹⁷⁾ 이것은 「文革」때 叛徒로 낙인찍힌 어머니를 가진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상처를 다루고 있다. 傷痕文學이란 이름이 이것으로부터 생겼으며, 이것은 社會主義悲劇을 묘사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깨뜨렸다. 「傷痕」은 “人民이 바라는 것을 쓴 作品만이 人民의 共感을 받고, 人民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作品”이라는 評을 받았다.¹⁸⁾

① 劉心武의 「班主任」

劉心武의 단편소설 「班主任」은, 1977년에 「人民文學」제 7기에 발표되었다. 이 作品은 1978년에 최우수 단편소설상을 받았다. 1979년에 발표된 소설 「我愛每一片綠葉」은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劉心武는 文革 후 中共의 유명한 작가로 부상했다. 「班主任」은 노동자 가정출신의 학생 2명과 지식인 가정출신의 학생 1명, 그리고 교사 2명을 등장시켜 4인방 시

15) 劉心武의 班主任은 1978年 최우수 단편소설상을 받았다. 「人民文學」1977年 第11期.

16) 李充陽, “中共黨의 文藝政策”, 「中蘇研究」1982年春, 第6卷第一期.

17) 盧新華, 「文雁報」, 上海, 1978年 8月 11日.

18) 「光明日報」, 1978年 9月 28日.

대에 교사들이 당한 모욕을 고발하고 있다.

작가 劉心武는 이 작품에서 학생들의 교조적인 사고방식과 난폭행위를 묘사하고 “이 학생들은 허구의 人物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확실히 잘 알고 있는 學生群이다…… 세 학생과 같은 ‘병든 젊은이’의 모습을 제공한 것은 불만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작품속의 인물을 통해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의 실상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내가 폭로한 것은 작품 속의 어느 특정인물이 아니라, 萬惡의 4인방이 청년 일반에게 끼친 害毒”이라고 밝혔다. 劉心武는 作品의 배경이 된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15년 동안의 중학교단 生活에서 10년동안 班主任을 맡았다…… 나는 불량학생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다. 지식이 극단적으로 부족한데도 조금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점이었다. 이들에게 지식이란 쓸 데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것은 林彪, 江青이 만든 나쁜 결과다.

劉心武는 1970년에 北京十三中學에서 전형적인 北京 빈민 가정 출신의 不良학생을 지도한 경험을 통해 作品을 구성했다. 北京의 하층 가정 이 中共의 문학작품속에 등장한 것은 이때까지 거의 없었다.

文化大革命 발단을 배경으로,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환경에서 10代 전반에 불량소년으로 전락한 학생들이 犯罪行爲에 대한 罪意識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사회문제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고발한 이 작가는 이를 「文革」의 特産이라고 지적했다.

劉心武가 그의 作品에서 폭로한 것은 주로 4인방의 죄악이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는 中共社會의 모순과 어두운 면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中共社會의 病態를 폭로하고 또 영웅인물을 창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毛澤東 文藝原則에 어긋날 뿐 아니라, 毛澤東 追從者의 불만을 살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劉心武의 「班主任」은 中共의 새로운 「黨中央」이 바라는 「4인방」 비판 의도에 부합되어 中共 관변에서부터 열

렬한 환영을 받았다. 「人民文學」편집부는 이 소설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여러번 개최했다. 한 좌담회에서 「文藝報」의 편집장인 馮牧은 “「班主任」은 우리 創作의 모범을 제시한 것이다”¹⁹⁾라고 했다. 또 다른 評으로 “「班主任」을 대표로 한 이같은 作品의 출현은 한층 새로운 創作潮流의 興起이다. 중시할 가치가 있으며 환영해마지 않는다”²⁰⁾는 것도 있었다. 毛澤東 文藝路線을 이탈한 劉心武에 대한 적극적인 評은 政治的인 요인 이외에도 중공작가들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 많은 독자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던 현실이 작용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劉心武는 이제까지 학습하고 지켜온 毛澤東 「文藝理論」을 어긴 것이 不安했던지 「班主任」발표 후,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나는 반드시 毛主席의 「講話」가 이끄는 길을 따라 世界觀 改造에 노력하고, 生活源泉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堅持할 것을 천만 번 스스로 다짐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體系로써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삼아 實事求是의 태도로 관찰·체험·분석하여 戰鬪生活를 표현하고 동시에 典型化의 原則을 견지하고 학습하여, 革命現實主義와 革命浪漫主義를 서로 결합한 창작 方法을 운용하여, 엄숙하고 착실히 창작을 진행하겠다. …… 나는 영원히 毛主席의 「講話」의 정신을 받들어, 뛰어난 文藝工作者가 되고, 장기적이며 무조건적인 본 마음으로 工·農·兵속에서, 불타는 투쟁 속에서, 유일하고, 가장 크고, 가장 풍부한 원천 속에 들어가서 새롭고 좋은 작품을 쓰게 되기를 원한다.”²¹⁾

劉心武가 이 글을 발표한 의도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毛澤東 「文藝理論」을 어겼다거나, 思想改造가 안됐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비적인 의미가 강하다. 劉心武가 批判되지 않았던 의미는 毛澤東 「文藝理論」이 단지 원칙만으로 존재하고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선 예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서일 것이다.

② 盧新華의 「傷痕」

19) 馮牧, “打破精神枷鎖”, “走上創作康莊大道”, 「文學評論」, 第5期, (1978) p.56.

20) 西來·蔡葵, “藝術家的責任和勇氣”, 「文學評論」, 第5期, (北京: 1978.5), p.65.

21) 劉心武, “根植在生活的沃土中”, 「人民文學」, 第9期, (1978), p.76.

「班主任」의 뒤를 이어 問題作으로 등장한 소설이 「傷痕」이다. 4인방 시대에 일어난 중공의 家庭悲劇을 묘사한 盧新華의 「傷痕」은 1978년 8월에 上海「文雁報」에 발표되어 中國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作品은 문혁기간중에 叛徒로 낙인찍힌 어머니를 가진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상처를 다루고 있다.

盧新華는 이 소설이 단순히 毛澤東의 「文藝理論」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변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毛의 문예이론을 비판했다.

“毛澤東의 「講話」는 1942년에 발표되어 이미 30여년이 지났다. …… 理論은 당연히 시대상황의 추세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지, 시대상황이 理論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文學과 社會主義 文學觀과는 충돌되지 않는 것이다.”²²⁾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革命現實主義」의 소산이기 때문에 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작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응은 찬반 양쪽으로 나왔었다. 「文雁報」는 「傷痕」을 실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한 두편의 문제작이 中共文學의 새 국면을 열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傷痕」을 일반적인 문학 작품으로서 평가하기에 앞서 中共에서 받아 들여진 이면에는 이 작품 또한 4인방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새로운 전형을 갖춤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主人公의 독백으로 미루어 보아 中共文藝에 일관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안심하십시오. 이 딸은 영원히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고, 또 내 마음 속의 이 상흔을 누가 만들었다는 것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華主席의 恩情을 잊지 않을 것이고, 또 華主席이 우두머리로 영도하는 黨中央을 좇아서 당의 사업을 위해 나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소설이 발표된 시기에는 華國錄이 실권자로 있었던 것이다.

22) “訪「傷痕文學」的開拓者”，「動向」第18期，（香港：1979），p. 46～49.

③ 白樺의 「苦戀」

상훈문학과 폭로문학의 대표적 作家인 白樺의 본명은 陳佑華로 현직은 中共의 軍中 文藝工作者이다.

1950년부터 아마추어 작가로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그는, 1953년에 賀龍의 개인비서로 복무하고, 그 후에 軍區總政治部創作室의 創作員이 됐다. 1957년에는 右派로 지목되어 共產黨籍과 軍籍을 박탈당하고 上海의 八一映畫機械工場으로 옮겼다. 1961년에는 映畫製作所에서 일했다. 1964년에는 右派란 죄목을 벗고 다시 軍에 들어가 武漢軍區 活劇團에서 編劇에 종사했다. 그는 文革 기간중에는 다시 숙청되었다가 4인방이 축출된 이후 복권되어 武漢軍區의 편극을 담당하면서 武漢軍區 文化部 創作小組 組長과 「文聯」 4회 委員으로 지냈다.

軍과 文藝의 두 분야를 편력한 그의 체험이 集積된 결과가 그를 비판문학의 정상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白樺는 1980년에 들어 「人民文學」, 「清明」 및 「收穫」 등의 간행물에 중공간부 및 권력층의 부패를 파헤친 「一束信札」, 「阿：古老的航道」, 「媽媽啊：媽媽」 등의 소설과 劇本 『「向前書」的故事』를 발표했다.

1978년에 中共 淮海戰役을 다룬 話劇 「今夜星光燦爛」은 1980년에 영화화되어 많은 찬반 양론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어떤 方面에서 보든지 모두 成功的이라고 생각한다.”²³⁾ “이 영화가 가장 성공한 점은 지금까지의 公式을 벗어난 데에 있다.”²⁴⁾ “詩情을 느끼게 한다.”²⁵⁾ “진실되지 못하고 현실 생활을 떠난 것이다. 淮海戰役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조금도 표현되지 못했다.”²⁶⁾ “서로 죽이는 戰爭속에서 人性의 아름다움과 人情味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美라는 것이 무엇이나.”²⁷⁾

23) 盧小巖, “我們喜愛「今夜星光燦爛」”, 「北京晚報」, 1980.7.10.

24) 章蕪, 對(關於「今夜星光燦爛」)的不同意見”, 「人民日報」, 1980.8.13.

25) 亦代, “燦爛星光”, 「人民日報」, 1980.6.18日.

26) 陳汛, “關於「今夜星光燦爛」”, 「人民日報」, 1980.7.30.

27) 少舟, “爲何刪掉這場戰”, 「北京晚報」, 1980.7.29.

“沉重한 기분을 느끼게 해 관중의 士氣에 영향을 준다.”²⁸⁾ 등의 시비가 었갈렸다.

여기에 대해 白樺는 1980年 9月 3日의 「人民日報」에 다음과 같은 글로써 자신의 見解를 밝혔다.

하늘의 별들은 우리 戰友의 눈동자다.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묻는다. 우리들이 젊음을 바쳐 이룰 새 中國이란 오늘날 건설되고 있는 그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이같은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文藝作品속의 戰爭은 現實生活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결코 軍事教材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白樺의 作品과 主張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은 일부 作品에 대한 상영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상황 아래 문제의 劇本人 「苦戀」이 1979년에 문예지인 「十月」의 제 3기에 발표됐다.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苦戀」은, 中國혁명을 배경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지식인의 환상과 고난을 주제로 하여, 삶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맹목적인 愛國主義에 批判을 加하고 있다. 또 인간의 본질이 자유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劉賓雁의 「人妖之間」

劉賓雁은 中年作家로서, 일찌기 20餘歲에 「在橋樑工地上」을 써서 이름을 날렸다. 이 作品은 1950年代 「眞實을 쓰자」라는 現實主義思潮의 영향속에서, 橋樑責任者 羅立正이 熱情과 幻想속에서 橋樑工程을 하면서 점점 停滯된 「保守主義者」로 變해가는 過程을 그린 것이다. 이 作品은 文藝界에서 積極的으로 「生活에 간여한 것」이라는 讚揚을 받았다. 이것은 「社會主義社會」의 어두운 面도 써야하므로, 「寫眞實」이라 일컬어진다. 이 點은 劉賓雁 作品을 特徵지워주는 것으로, 그는 또 「人民日報」에 「本報內部消息」을 發表하였다. 그는 1950年代 末期에 反「右派」鬭爭

28) 馮牧, “星光依然是燦爛的”, 「北京晚報」, 1980.8.25.

으로 下放되어 勞動을 통한 思想改造를 強要당했었다.

劉賓雁의 力作 「人妖之間」은, 1979年 9月號 「人民文學」에 發表되었다. 이 作品은 中央黨 支部의 書記 兼 석탄회사의 責任者인 王守信이 「文革」 期間中 特權을 利用하여 致富하는 모습을, 中共社會의 어두운 모습으로 부각시키면서 中共制度의 缺陷과 關係를 맺어 指摘하고 있다. 그 몇 귀절을 소개하면 “共產黨은 모든 것을 管理하면서, 오직 共產黨만은 管理하지 않았다.” “社會氣風의 破壞, 不法活動의 合法化는, 道德이 유린되는 現象으로 되어, 習慣化되고 점점 당연히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現象들은 결국 王守信의 犯罪活動을 隱호하였다.” “왜 共產黨 領導下의 社會主義의 한 地方에서 이런 人妖가 「四人幫」이 축출된지 거의 3년이 지나는 지금도 繼續 發生하는가?” “사람들아, 경계해야 한다! 現在는 아직도 勝利를 歡呼할 때가 아니다……”

中共內部에 대해 이토록 깊이 暴露한 것은 過去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따라서 즉각 커다란 反應을 일으켰는데, 劉賓雁의 말에 의하면: “「人妖之間」을 發表한 以後에 일어난 反應은 黨·政·經·法·文教 등 거의 모든 系統을 망라하고 있다. 어떤 工人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 격려하기를: 내가 당신의 「人妖之間」을 읽을 때에, 무슨 힘으로 그렸는지 모르게 나는 손에 움켜쥔 찻잔을 부숴버렸다. ……나는 激昂된 心情으로 「人妖之間」을 우리 班組의 14명의 工人에게 읽어주었다. ……나는 이 工人들의 委託으로 당신에게 祝賀를 表示한다. 그 뜻은 우리의 劉賓雁 同志가 今後 우리들에게 眞實된 말을 좀 더 많이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는 거짓된 말, 허황된 말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讀者의 편지는 劉賓雁의 「人妖之間」의 中共讀者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를 알려주고 있다.

⑤ 巴金の 「懷念蕭珊」

巴金은 1904年 四川省에서 出生한 元老作家로 本名은 李芾甘이다. 그는 프랑스에 留學하였고, 無政府主義理論에 매우 興味를 가져, 著名한

無政府主義者 Bakunin, Mikhail Aleksandrovich(1814~1876)과 Kropotkin, Pëtr Alekseevich(1842~1921)의 中譯 이름의 前後 두 字를 合하여 巴金이라고 筆名을 지었다. 그의 첫번째 小說 「滅亡」이 1929年 「小說月報」에 發表된 以後, 그는 小說 「死去的太陽」·「愛情三部曲」(霧·雨·電)·「激流三部曲」(家·春·秋)·「火」·「憩園」等을 發表하였다. 左派 作家中에서 巴金은 創作의 質과 量의 水準을 始終 保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49年後, 그는 「上海文聯主席」과 「上海作協主席」을 겸하면서, 「文革」前 17年中 小說創作은 하지 않았다. 1962年 「作家의 勇氣와 責任心」으로 中共文壇을 批評하였는데, 1966年 「文革」以來 이 文章으로 因해 批判받고 近十年을 中共式監獄에서 보내다, 1977年에야 풀려났다.

巴金の 「傷痕文學」 作品 「懷念蕭珊」은 廣州 「作品」 月刊 1979年 4月號에 發表되었다. 이것은 죽은 妻를 애도하고 생각하는 散文으로, 中共 用語로 말하면, “典型的 環境속의 典型人物을 概括的으로 再現한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追憶하기를: “나는 매일 외양간에서 勞動·學習·檢査·思想(改造)의 報告를 했다. 아무나 나를 욕하고, 敎訓을 주고 指導하였다. 他地方에서 作家協會에 온 사람들은 마음대로 나를 불러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또 내 스스로 罪를 報告하게 시켰다.” 이 時期엔 오직 그의 부인 蕭珊만이 그의 精神의 支柱였다; “그녀는 나를 늘 慰安을 하였고 나를 믿었고 나를 대신하여 不平을 느껴줬다.” 그녀는 “精神的 타격을 더 많이 感受하는 것이 나에 대한 壓力을 감소시켜주는 것이다”고 여겼다. 그녀는 巴金の 부인이였기에 病으로 쓰러졌는 데도 治療를 받지 못하여, 巴金은 “뒤틀거래를 통해 그녀를 病院에 입원시켰으나 그녀는 이미 腸癌이 肝癌으로 되었다.”

巴金은 말하기를: “그녀가 이 世界를 떠날 때에 나는 그녀 옆에 있지 않았다. ……집안사람 아무도 없이 그녀는 淒涼하게 죽었다!” 장사지낼 때 “哀悼詞도 弔客도 없이 단지 傷心의 哭聲만 있었을 뿐이었다” 또

巴金을 괴롭힌 것은: “나의 아들이 公民權利를 剝奪당했다. 그는 먼저 沈默을 배웠고, 다음 담배를 배웠다. ……나는 當初 小說을 쓰지 말았어야 했고, 더더욱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고 後悔하였다. 나는 2·3年前 그녀가 내게 말한 것을 아직도 記憶하고 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여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여긴다.’ 이 말은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뺏속에 삼켰다.” 巴金은 이 散文에서 批判의 뜻은 나타내지 않았고, 憤怒도 表示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마음을 通하여 歷史의 證言을 하는 것이다.

巴金이 쓴 主題는 夫妻의 愛, 親子의 情이라 하겠다. 그러나 毛澤東은 階級の 愛만 있다고 強調하였기에, 巴金은 自身の 悲劇으로 親情·個人的 愛가 珍貴하다는 것을 通해 人性·人倫의 重要性을 反證하고 있다.

Ⅳ. 中共黨의 傷痕文學에 대한 批判과 標準文藝作品

(1) 「傷痕文學」의 追求傾向과 中共黨의 批判

이러한 毛澤東文藝思想에 대한 도전과 비판은 文藝界를 좀더 활발하게 하였고, 계속 이런 類의 文藝作品이 出現하였다.

이 傷痕文藝의 內容은, 中共建國 이래 사람들이 겪은 물질상의 재난과 精神上의 苦痛을 폭로하고 있다. 初期에는 「四人幫」몰락 以前, 특히 文革期間의 어두운 면과 그것으로 인한 傷痕을 주로 고발하고, 「四人幫」몰락 後의 社會現實을 肯定的으로 보려는 傾向을 띠었다. 이것은 「文革」으로 받은 中共大衆의 타격과 분노를 체험적으로 고발한 것과, 生活에 대한 깊은 理解와 眞實로서 目前的 社會現象의 矛盾을 描寫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데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傷痕文學의 傾向은, 1957年 「右派」로 몰렸던 作家들의 참여로 새로운 發展을 하였다. 이들은 毛澤東文藝思想에 대해 恨과 比較的 正

確하고 成熟한 政治是非感을 갖고 있어, 中共社會矛盾을 좀더 깊이 파헤친 文藝作品을 創作하였다. 이들의 作品은 「文革」과 「四人幫」의 罪惡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根源을 파헤쳐보려 시도하였고, 그것으로 인한 現實社會를 批判하고 폭로하였다. 자연 「毛澤東文藝理論」뿐 아니라, 毛澤東의 功過와 「毛澤東思想」에 대한 비판을 가하게 되고 따라서 中共體制에 挑戰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런 작품들이 中共의 官報·잡지에 발표되었다는 것은, 中共黨權者들이 「四人幫」을 제거한 당위성을 알리려는 정치적 필요와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이 傷痕文學作品속에 反映된 中共建國 이래 각 시기의 社會現實面貌를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1957年 反右派鬭爭으로부터 「四人幫」 몰락후 1979년까지, 이 期間의 災禍·恐怖, 그리고 惡夢같은 生活을 그린 作品들,

② 「四人幫」과 「文革」十年으로 인한 社會問題와 悲劇을 그린 作品들

③ 「四人幫」이 몰락한 후, 中共特權階層의 罪惡·官吏의 부패와 中共現實의 어두운 面에 대한 비통함을 고발하여 官僚體制的 모순을 지적한 作品들,

④ 超階級の 愛와 人間性 恢復에 초점을 두고, 愛情自由를 中共社會現實과 道德標準의 對立속에서는 悲劇으로 이끄는 傾向을 띤 作品들.

傷痕文學속에서 「四人幫」을 批判한 것은, 黃安思는 1979年 4月 15日 「廣州日報」에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四人幫」에 대해 대담하게 반항하는 英雄의인 人物을 묘사한 것, 둘째 「班主任」과 같이 「四人幫」에 의해 저질러진 社會問題를 제기한 것, 셋째 「四人幫」의 폭정아래 個人이 당한 비참한 實狀을 고발한 것이다.

이 作品들은 自然히 人道主義的 傾向을 띄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修正主義라고 批判하였으나,²⁹⁾ 최근 이에 대한 새로운 討論이 벌

29) 汝信, “人道主義就是修正主義嗎?” 「人民日報」, 1980年 8月 15日

어지고 있다. 1980년부터 3년간 中共 294種의 新聞·雜誌등의 統計에 의하면, “人”에 關한 文章은 424篇이고, 그중 일부는 마르크스主義와 人道主義에 關한 것이다. 이 討論의 方向은, 마르크스主義와 人道主義는 一致되는 것이고, Marx-Engels에 의해 버려진 것은 단지 ‘人道主義’라는 칭호 뿐이고 이 實質이 放棄된 것은 아니라³⁰⁾는 表現으로, 文藝의 人道主義的 立場을 옹호하고 있다.

또 傷痕文學은 特히 愛情問題를 많이 다루면서, 個人의 道德情緒와 內心世界의 表現으로 人間의 問題를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傷痕文學의 愛情問題는 “×(主題의 種類)+傷痕+愛情”이라는 創作公式이 流行하게 된다. 이러한 文藝의 諸現狀에 대해, 中共에서는 대대적인 讚反兩論의 批判이 치열하게 進行되었다. 「愛」에 關해, 胡耀邦은 愛情 묘사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³¹⁾ 傷痕文學에서 愛情과 革命·愛情과 社會主義事業의 關係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고, 愛情을 너무 強調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³²⁾ 鄧小平은 「愛」에 關해 원칙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의 指導를 堅持하고, 新時代를 잘 認識하면, 文藝의 愛情問題는 잘 해결된다는 것이다.³³⁾ 愛情에 대해 鄧小平과 胡耀邦의 이러한 태도는 「毛澤東思想」을 堅持하는 듯하면서도 사실상은 否定, 또는 修正하고 있는 것이다. 毛澤東의 觀點에 의하면, 「愛」는 강열한 階級性을 띠고 있어, 같은 階級 사이에서만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愛情은 黨性과 階級性의 制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고, 80年代의 愛情을 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30) 丁學良, “馬克思主義與人道主義是一致的” 「文匯報」, 1982年 4月 12日.

31) 「人民日報」, 1981年 12月 2日.

32) 胡耀邦, “全國故事片電影創作會議” 代表와의 接見에서, 1981年 12月 27日. 「匪情月報」第24卷第11期, p. 79. 臺北.

33) 司馬文櫻, “編輯的責任”, 「文藝報」1981年 11月號, p. 38.

(2) 中共黨의 新文藝政策과 標準文藝作品.

이러한 내용의 文學作品은 中共黨權派의 찬양을 받은 것도 적지 않으며, 그들은 傷痕文學을 통하여 「文革」前後의 否定的인 현상들을 폭로하게 하여, 「四人幫」과 毛澤東路線을 추종하는 者들에게 타격을 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 文藝作品은 「毛澤東 文藝思想」 범주를 벗어나 脫「毛澤東思想」의 傾向을 띠게 된다. 이것은 신당권파로 하여금 毛澤東路線에 의한 모든 體制를 정비하고, 그 추종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론조성이 되는 것이다. 이 時期는 1950年 末의 “百花齊放·百家爭鳴”의 경험을 계승한듯 보이게 되고, 「文革」10年 極左路線의 암흑기에 비한다면 文藝의 봄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新黨權派가 아직 확고한 정치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되는 1981年初 中共中央은, 특히 文革을 소재로 한 傷痕文學은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못박았다.

同時에 中共은 標準作品을 例로 들어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그 例로 毋國政의 「他們相聚在初冬」을 보면,³⁴⁾ 십여명의 평범한 知識人들의 모임에 관해 쓴 것인데, 主人公 李仲原은 現實生活의 病弊와 自身이 당한 不公平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怒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自身이 맡은 일을 할 때는 오로지 祖國·民族과 自身の 일만을 생각하고, 불만과 怨을 잊는다. 즉 그의 心中엔 오로지 한가지 생각만 남아 있다——일을 잘 해야 한다——이러한 標準文藝作品에 대해 馮牧은 좀 더 구체적으로 方針을 밝혔다. 즉 “우리의 作家는 마땅히 時代前進에 발 맞추어, ……新趨勢·新思想·新人物을 藝術形象으로 하여 作品에 表現해야 한다.” 또 “人民을 教育하여…… 改革의 促進派로 만들어야 한다.”³⁵⁾ 그의 이러한

34) 陳仰民·何淵耀, “表現時代是文藝家的歷史責任”, 「人民日報」1983年 1月 19日.

35) 馮牧, “作家要做改革的促進派”, 「人民日報」1983年 1月 19日.

主張은 新黨權派의 앞으로의 文藝方向을 代辯하는 것이다.

V. 結 語

「傷痕文學」의 未來發展은 中共黨의 領導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文革」後의 中共「黨中央」은 「傷痕文學」이 反映한 創傷에 대해 基本的으로는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그들이 制止는 오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領導的 人物의 大部分이 일찍이 政治運動속에서 迫害를 받은 적이 있고, 다시 權力을 잡았기 때문이다. 自身들이 직접 冤통함·잘못·거짓 등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一般人들도 冤통·怒氣 등을 발설하는 것을 制止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制止하지 않는 것도 無限度로 放任하는 것은 아니다. 基本上 그들은 中共幹部이기에 「傷痕文學」의 反映이 黨中央의 領導나 그들 個人에 不利하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制止할 것이다. 나날이 發展中인 「傷痕文學」에 대해 中共은 制止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단지 合理化시킨 解釋으로 中共黨의 領導를 鞏固하게 하려고 있다. 中共「黨中央」이 취하는 策略은 「毛澤東思想」을 維護하고 修正「發展」시키고, 過去를 簡單化시키고, 現況을 合理化하여 未來를 좀 더 複雜化시키려는 것이다. 過去를 簡單化시킨다는 것은 「文革」前 17年の 文藝路線은 基本上 正確한 것이라고 肯定하여, 中共의 歷史的 業績을 이어 받는 것을 의미한다. 現況의 合理化는 「文革」10年の 모든 罪行을 「四人幫」에게 밀어 붙여서, 「四人幫」時代를 고발한 「傷痕文學」을 「四人幫」罪行의 實證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傷痕文學」은 中共內部에서 事實合理化로 나타나게 된다. 未來를 複雜化시키는 것은, 「四個現代化」를 新時期의 總目標로 強調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新理想으로 向하게 하고 「傷痕文學」이 反映한 아픔에 대해 注意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同時에 創作素材의 多樣化로 作家들의 注意를 分散시키려 한다. 卽: ① 現在 全國各民族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四化」를 實行하는가. ② 中共建黨以來의 「革命」 歷史. ③ 1840~1919, 80年間の 「舊民主主義革命」. ④ 歷史上 勞動人民의 鬭爭이야기를 쓴다. 이러한 複雜化로 「傷痕文學」을 無形中에 굴레를 풀어주게 된다.

「傷痕文學」이 中共 사람들의 대대적인 歡迎을 받게 된 重要한 因素는 生活의 眞象을 反映했기 때문이다. 即 文學이 「生活에 간여하고」·「眞實을 썼기」 때문이다. 中共作家들은 自由創作의 權利를 爭取하려 努力하였기에 素材의 多樣化가 어느정도 許可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傷痕文學」이 일어나게 된 根本的 因素는 「毛澤東文藝理論」과 中共의 制度이었기에, 이것이 存在하는 한 作家의 創作은 항상 굴레속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 即 「毛澤東思想原則」을 固守하면서 그것을 修正的으로 「發展」시키려는 現體制下에서는, 黨의 「文藝政策」과 作家들의 自由創作精神과는 늘 갈등關係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갈등과 鬭爭은 좀 더 複雜한 양상을 띠고 일어날 것이다.